오늘 밝힌 자비 등불로 상처 입은 사람 위로를

성파 스님
조계종 종정



무생(無生)의 삶을 이룩하고 해탈(解脫)의 위신력(威神力)을 갖춘 분이 오늘 진리(眞理)의 현신(現身)으로 우리곁에 오셔서 범부(凡夫)를 고쳐 성인(聖人)을 이루는 우레 같은 할(喝)을 하니 비로(毘盧)의 바다가 뒤집히고 생각마다 미륵(彌勒)이 하생(下生) 합니다. 곳곳에서 진리(眞理)의 현관(玄關)이 열려 중생(衆生)을 깨우치는 사자후(獅子吼)가 쏟아지고 자문(慈門)이 열려 중생(衆生)을 요익(饒益)케 하는 무외시(無畏施)가 넘칩니다.

새들은 환희(歡喜)에 젖어 생멸(生滅) 없는 무생가(無生歌)를 노래하고 석녀(石女)는 줄없는 거문고로 틀 밖의 소식을 전하니 두두물물(頭頭物物)은 불조대기(佛祖大機)를 풀어내고 범성(凡聖)은 본래면목(本來面目)을 통해 차별 없는 일미(一味)를 이룹니다.

삼라만상(森羅萬象)은 일기일경(一機一境)을 통(通)해 진리(眞理)의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분 앞에 시종(始終) 없는 빛을 놓고 있습니다.

자성(自性)을 통(通)해 무생(無生)의 면목(面目)을 깨달은 분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解脫)과 안락(安樂)을 얻을 것이요, 탐욕(貪慾)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타적(利他的) 덕성(德性)을 깨달은 분은 함께 아파하고 치유하는 보살(菩薩)의 대기대용(大機大用)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열어서 중생(衆生)이 지닌 어둠을 걷어내고 본래면목(本來面目)을 깨닫게 하는 지혜(智慧)의 논밭을 일구어 중생(衆生)이 쏟아낸 노여움과 아픔을 반야(般若)의 품으로 안아서 따뜻한 자비(慈悲)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 고통은 사랑과 자비(慈悲)의 헌신(獻身) 없이는 줄어들지 않고 중생(衆生)의 고통을 제 몸에 담는 비원(悲願) 없이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대비(大悲)의 한 생각이 세상(世上)을 변화(變化) 시키고 인생(人生)을 바꾸게 합니다.

날마다 미워하고 다투며 얼굴을 붉히는 이웃이 부처 될 사람이며 불조대기(佛祖大機)를 갖춘 진리(眞理)의 구현체(具現體)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자비의 등불은 좌절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만해진 사람들에게는 회심(回心)의 눈을 뜨고 자기를 낮추게 하는 하심(下心)의 등불입니다.

대자대비와 지혜로 세상의 어둠 밝히자

법공 정사
불교총지종 종령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온 세계에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길 서원하며, 모든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행복과 희망, 선업과 복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야 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이 사회는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불국정토로 거듭 날 것입니다.

수행본기경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나(我)란 존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 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주의 근본이며 출발점입니다. 내가 태어남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또한 내가 죽는 날 이 우주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소중한 만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이니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나갑시다. 성도합시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친애하는 불자여러분. 오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더 특별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려움 없이 이웃과 함께 활짝 웃으며 서로를 마주보는 온전한 부처님오신날을 3년 만에 맞이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을까 상대방을 배려했던 따뜻한 마음,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지 않은 희생정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보살피는 자비심이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모두 인연과 인과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은 마음의 전쟁을 불러오고 내려놓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내 안의 존엄함을 깨닫고 청정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스스로가 주인공이며 부처로 살아가는 길이 될 것이며 온 국민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모든 국민과 불자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한결같은 불자의 목표 '성불'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으로 오신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의 사자후로 만 생명의 존엄을 설하셨으니, 우리가 만법의 주인이요 우리 사는 이곳이 극락입니다. 오늘 봉축의 마음 모아 오색의 연등 밝히니, 무명 번뇌는 사라지고 정법의 시대가 환하게 밝아 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지는 이치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깨우침의 힘은 탐욕의 불을 끄는 지혜를 싹틔우고 악행의 과보를 녹여 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의 한결같은 목표는 성불입니다. 성불을 향한 길은 오직 마음 닦는 길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니, 굳건한 신심과 드높은 서원을 잃지 말고 열심히 정진합시다. 정진이 무르익어 자등명이 성취되고 일심이 청정하여 법등명이 이루어집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닦아가면 오늘도 내일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참회 · 화합으로 불국정토 만들자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불안했던 나날을 보냈습니다. 치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우리 사는 이곳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참회하고 화합하며 혁신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자주정신으로 새롭게 발돋움해야 합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봉행하는 우리들의 불작불행(佛作佛行) 인연공덕(因緣功德)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은 열반락(涅槃樂)을 얻어 영원한 안락을 누리며,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이들은 하루 빨리 고통을 여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웁시다.

올해는 진각성존 회당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신지 6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종단은 '다시 종조정신으로' 라는 기치아래 신행문화를 활성화하면서 교화와 포교불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언행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종단이 거듭나도록 서원하고 정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비 실천해 사회적 책무를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智見)을 열어서 청정함을 얻기 위해 출현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명 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올바른 통찰을 열어 보이고, 생사의 속박과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구체적 원력을 갖고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불자들은 등이나 밝히는 일로 부처님 오심을 봉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각을 통해 진여의 올바른 삶을 개척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어려운 이웃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자비 실천으로 봉축하고, 이 나라의 분단된 아픔을 통일로 치유할 수 있는 헌신적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불교가 이 시대의 종교로서 구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음 속 불성 볼 때 환희장 열린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부처님께서는 원만히 구족한 지혜를 몸소 깨달아 일깨워주시고, 동체대비의 크신 자비로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심에 물든 중생들에게 무욕(無慾)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중생들에겐 이념과 사상, 계급과 계층, 지위와 위상이 다를 수 없습니다. 차별과 차등이 없는 평등한 세상에서 공존과 소통의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헤아려 마음 속 환한 등불을 찾는 것이야말로 참된 불자의 도리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회 공동체의 평화와 평등을 위한 뜻깊은 법석을 널리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완(未完)의 부처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불성(佛性)을 바로 볼 때 이 사회의 어둠을 물리치고 환희장의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불성이 세상을 밝히는 날, 부처님의 미소가 우주법계에 봄꽃처럼 만개할 것입니다.

분별없는 마음으로 이웃 돌아보자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봉축하며,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모두 평안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존재가 공통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를 보면 곧 법(法)을 보고, 법을 보면 곧 여래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불이(不二)의 관계에 있으며, 모든 존재는 결국 한 몸, 즉 동체라고 설하신 것입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다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인간으로 오신 부처님 시현의 참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분별없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소욕지족의 삶을 실천할 때 오탁의 번뇌가 없는 청정한 밀엄정토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펼쳐 놓으신 가르침에 의지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이 열리기를 대일여래의 가지력을 빌려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무명 번뇌 제도하면 깨달음 세계 돌아가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모든 생명을 제도하시고자 일대사 인연으로 나투신 자비의 부처님.

고귀한 만남의 인연을 벅찬 감격으로 두 손 모아 맞으며 큰 뜻을 따르리라.

중생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는 거룩한 원력을 찬탄하며 광대무변한 법신의 자리를 향하리라.

생멸이 없는 마음의 본성을 보면 곧 진실한 부처님을 볼 것이니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듯 중생의 고향은 부처님 도량이구나.

중생심을 일으키는 무명 번뇌 제도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으리니, 평화로운 마음에서 인류의 행복 얻어지고 일심 청정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룩하여라.

삼라만상 각양각생 모두 하나의 법성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하늘땅의 움직임이 제 길을 가듯이 부처님은 오고 감이 늘 자재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오십니다. 선남선녀 찬탄하여 꽃 뿌려 맞이하고 오시는 뜻 헤아리고 받들어 갑시다.

법계는 그 자체가 일여성(一如性)이여서 겉은 나뉘면 여럿이고 안은 모여 하나라. 삼라만상 각양각색 제 빛깔을 자랑해도 모두 다 하나 법성의 장엄한 활동상이니 그 이치 깨치면 안락정토 여기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 이것저것 분별하여 내 것 남 것 주고받고 뺏고 뺏기지만 다툼은 다시 화해로, 다름은 또 조화로 생명법칙 깊은 속성 마음에 담아내면 나라거나 사람마다 손잡고 살아갑니다.

군중의 아픈 외침 갑남을녀 신음소리 남 탓 내 변명하며 메아리로 돌리고, 거짓 숨겨 진실인양 내 책임 떠넘겨도 지은만큼 받는 진리 거스를 수 없으니 속마음 서로 새기며 평등사회 가꿉시다.

윗자리 아랫자리 때에 따라 바뀌거늘 내 자리 나의 몫을 제대로 보살펴서 참회를 먼저 하여 내 형편 떼쓰지 말고 더불어 사는 동네 곳곳 포근히 감싸 안고, 세간의 생활 중에서 참 깨달음을 누립시다.

참 마음 심인 밝혀 오신 뜻을 기립시다.

인욕의 갑옷 입고 세상에 법 전하자

홍파 스님
관음종 종정



고덕(古德)께서는 멀고도 오랜 구원겁전(久遠劫前)에 제법실상(諸法實相)의 묘법(妙法)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중생의 삶과 하나 되어 깨달음의 성취로 돌아왔노라."

세상은 〈법화경〉 비유 말씀처럼 여전히 번뇌의 불길은 멈추질 않습니다. 온 세상은 편안한 곳이 없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아 고통이 가득하여 너무도 무섭고 떨리며, 생노병사와 우환이 항상 있으니 이런 번뇌의 불길이 타올라 그칠 줄 모르는구나.

우리 모두 부처님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산승(山僧)은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2567년 부처님오신날 합장하고 발원합시다.

많은 사람의 삶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인욕의 갑옷을 걸치고 이렇게 중생들 곁으로 진리의 법을 전하러 떠납시다.

편안하지 못한 이들을 편안하게 합시다.